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피해중첩집단과 일반집단을 중심으로

김선아**

초 록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가해,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집단과 가해-피해 중첩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와 관련된 함의를 제시했다. 첫째, 가해경험에서 일반집단의 경우, 친구놀림 스트레스, 부모의견충돌 스트레스, 부모대화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반면 가해-피해 집단은 스트레스와 상관이 없었다. 애착은 일반집단에서 선생님애착이 유의미했고 가해-피해집단은 부모애착과 선생애착이 유의미했다. 둘째, 피해경험은 친구 놀림, 무시스트레스가 가장 영향을 주었으며 일반 집단과 가해-피해 집단 모두 동일한 결과로 가해-피해 집단이 좀더 강했다. 각 변수와 경험의 상관관계에서도 각 집단이 달랐다. 결과적으로 폭력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는 스트레스와 애착관계를 염두에 둔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가해피해경험, 특히 중첩경험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과 이해가 필요한 것을 제시한다. 또 학교환경에서 폭력경험에 대한 개입방안의 활성화와 학교전문가의 개입과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청소년, 폭력, 가해경험, 피해경험, 스트레스, 애착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1차년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임.

** 한국사이버대학교

I. 문제제기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폭력과 비행의 형태는 예부터 나타나던 현상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당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그 방법과 횡수가 도를 더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이를 위한 더 자세한 현황파악이 필요한데 폭력을 가하는 학생과 폭력의 피해자인 학생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범죄가 집계된 1963년 이래 청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전후로 별 변화가 없었으나 1992년 이후로는 양적인 증가를 보였었다. 강력, 폭력범을 포함하는 청소년 범죄는 2002년에 123,921명에 달하였으며(문화공보부, 2003)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도 초등학교에까지 확산되어 여학생 사이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가해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번스타인과 왓슨(Bernstein and Watson, 1997)에 따르면, 약 7%의 초등, 중등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고, 롤랜드와 이드소(Roland and Idsoe, 2001)의 연구에서는 약 5%의 학생들이 주당 1번 이상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며 5학년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해자나 피해자의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일상화된 집단따돌림이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이러한 현상이 저 연령층으로 확산되며,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순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이명신, 2002).

이런 또래 집단 내에서 폭력으로 가해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현상의 원인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원인으로는 입시위주와 통계위주의 교육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강조하기도 한다(구본용, 1997). 그 외에 주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도 포함이 되며 스트레스와 아

동의 부적응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에서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에 정적인 관계를 발견했으며(강성희, 1991), 스트레스를 많이 겪은 학생일수록 교사에게 더 반항적이며 또래에게 더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오명희, 1994).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 가해빈도가 높았고, 스트레스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Natvig, Albrektsen, and Qvarnstrom, 2001; Taki, 2001).

이런 관계성을 볼 때 스트레스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나 주로 스트레스의 경험과 청소년의 건강이나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있고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행동인 또래 괴롭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김길임·심희옥, 2002). 더구나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의 영향이 가해집단과 피해 집단을 분류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청소년의 폭력경험에는 자신들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의 애착은 유아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그 단계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언제나 필요할 때 부모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기능적인 의미에서 청소년기의 애착이 형성되면 다른 발달적인 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애착의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된 가해피해 행동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경숙(2003)의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과 따돌림 피해자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남자는 부 애착, 또래애착으로 나타났고 애착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많았다. 폭력 가해자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남학생은 부 애착이었으며, 여학생은 또래 동조성이었다. 가해자의 경우, 애착관계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어서 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 지어졌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부정적인 행동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볼 때, 이런 관계성이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그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애착이나 스트레스가 각 경험유형에 따라 다른 것을 알아야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다른 심리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문제도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 (Arora, 1996; Rigby and Cox, 1996). 가해자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거나 평균에 가까운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 집단 더 우울해지기 쉽고, 더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된다(Olweus, 1994). 따라서 각 집단에 따른 애착이나 스트레스도 폭력경험에 대하여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가해피해의 연구에서 덧붙여서 생각해야할 것은 이원론적인 분류가 아닌 가해피해의 중첩에 관한 이슈이다. 보통 청소년 범죄에서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성별과 연령에서 서로 겹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박순진, 2005). 이런 가해-피해성향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불안하고 집중에 곤란을 겪으며 과잉활동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보고 되기도 하며(이민아, 1998; Oweus, 1994),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집단이라는 가설로 설명하려는 주장도 있다(Singer, 1981; McDemott, 1983; Lauritsen, Sampson, and Laub, 1991). 각각의 주장에서 중요한 요점은 가해를 하면서 피해도 당하는 집단의 경우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가해-피해 집단은 피해 집단과 유사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가해집단과 유사할 뿐 아니라 가해 집단보다 더 비행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예로, 가해집단은 가해-피해 집단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가해-가해집단은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는 결과도 있는데(Lauritsen 외, 1991) 연구 결과가 일관성이 없는 만큼 이 가해-피해 집단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애착관계가 어떻게 가해, 피해경험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가해피해의 중첩도 염두에 두어서 가해, 피해경험을 일반집단과 가해-피해중첩집단 중심으로 그 관계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스트레스는 청소년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가의 과정은 학교상담가나 학교 사회복지사가 습득하여

청소년문제의 예방이나 치료활용에 아주 중요하며(Howard & Medway, 2004), 애착관계도 어떤 대상에 대해 애착관계를 가진 것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의 폭력경험을 예방하거나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괴롭힘이나 피해문제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기 이후의 비행 및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에 필수적이다 (Baldry & Farrington, 2000). 또한 기존의 학교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도시 고등학교 남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성향을 보면 전체학생들의 공격, 폭력성향인 급증하고 있으며 그 연령대도 적어지는 것을 보아 아동기의 후반이며 청소년기의 초반인 중학생의 폭력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유선희,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가해나 피해 경험에 중요한 요인인 스트레스와 애착의 영향을 보며 각 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와 그에 따른 개입이나 실천방법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애착과 스트레스와 가해-피해 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여 또래가해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와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애착과 가해피해의 상관관계는 일반집단과 가해피해 집단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 2)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일반집단과 가해피해 집단에서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가해와 피해 경험

청소년들의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왔는데 1970년대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처음 시작되면서 유럽에서 많은 연구 후에 미국, 캐나다, 호주등지로 확산되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오혜정, 2000;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2000년 한국청소년 상담원에서 초중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2%가 학급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다고 지각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최은숙, 1999). 배삼준(1996)의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정도의 46%가 괴롭힘 피해자라고 했다.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전국대도시, 주소도시, 읍면지역의 학생대상연구에서는 48.1%의 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하고 30%의 청소년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응답을 하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감안할 때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가해자의 특성을 보면 동료에 대하여 공격적이다. 보통 청소년들보다 폭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충동적이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강한 욕구를 지니고 괴롭힘의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거의 없다 (김길임·심희옥, 2002). 피해청소년의 경우에는 더 우울해지기 쉽고, 더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져 가해집단과 다른 심리적인 특성을 갖는다(Olweus, 1994; Arora, 1996).

최근에는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힘의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뿐 아니라 상호적 관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김희화, 2001).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원·이해경, 2000)에서는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더 많은 또래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피해 집단은 가해와 피해 집단에 비해서도 더 많은 또래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이론이나 생활양식이론에 의하면 범죄사건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정한 의미에 있어서 상호의존적이라고 본다. 이것과 연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집단이라는 가설로 설명하려는 주장이 있으며 (Singer, 1981; McDemott, 1983; Lauritsen 외, 1991)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성상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실제 같은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비행은 일삼거나 갱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오히려 피해가능성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 되어지고 있다. 동일집단의 여부에 관해서는 더 연구를 해보아야할지라도 청소년 범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성별 연령에서 서로 겹치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박순진, 2005).

가해-피해 집단과 성별 집단간의 차이를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해-피해 집단이 가해 집단보다 우울정도가 더 높고, 불안은 가해-피해 집단 더 높았다(이상주, 2003). 그 외에도 가해-피해성향의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불안하고 집중에 곤란을 겪으며 과잉 활동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민아, 1998; Oweus, 1994).

2.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가해 피해 경험

스트레스는 부분적으로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의 요구에 달려있으며 대처의 가능성에 미치는 환경적 속박과 환경적인 자원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보면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은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사건, 학업성적, 선생님, 부모님과 관련된 사건과 신체와 관련된 사건으로 주로 나타난다(황정규, 1990). 최정숙(2003)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비행은 경제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학교관련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비행과 가해피해경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으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래괴롭힘의 가해빈도가 높고, 스트레스도 다양하며 교사나 또래에게 더 공격적인 것을 볼 수 있었다(Natvig, Albrektsen and Qvarnstrom, 2001; Taki, 2001; 강성희, 1991; 오명희, 1994). 일반학생보다 비행폭력학생이 학교성적, 학교생활, 친구, 부모, 성문제, 신체 등의 여러 스트레스 영역에서 증가된 스트레스 영역을 보였었고(임병애, 1997), 일반학생의 경우는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영자, 1996)

가해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의 극복이 가해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그리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나 가해자나 가해-피해 집단이 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Olafsen, and Viemero, 2000). 특히 가해-피해 집단의 경우는,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학업, 교사친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또래 가해, 피해행동에 더 연루되어있었다. (김길임·심희옥, 2002; 이정남, 2003).

3. 청소년의 애착과 가해, 피해 경험

청소년의 폭력과 관련되는 환경과의 관계에는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를 논의한 이론으로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을 들 수 있다(Hirschi, 1969). 이는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유대(bond)가 약화되면 비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며 Hirschi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다. 즉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동일시 정도가 낮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적을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이 소홀할수록 청소년 자녀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될 개연

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정도’를 중점으로 보는데 허쉬는 ‘학교,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비행을 저지르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로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비행화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긴장 요인으로 사회의 엘리트적 가치관에 의해 야기되는 공부에 대한 압력을 들고 있다. 즉 부모의 기대에 의한 지나친 공부 압력이 비행친구와 어울리도록 자극하는 요인이 되어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가 있다(김준호·김선애, 2000). 애착관계는 반사회적인 행동과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예측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알려져 왔으나 (Armsden and Greenberg, 1987; Warren, Huston, Egeland, and Sroufe, 1997) 다양한 애착관계가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많지가 않다. 그 중 한 연구에서는 애착과 가해행동이 가해집단과 가해-피해 집단과 연관이 있었으며, 가해-피해 집단에서 애착에 대하여 더 높은 평균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Ireland and Power, 2004). 피해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남자는 부 애착, 또래애착으로 나타났고 애착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많았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에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남학생의 부 애착이 유의미했으며 여학생은 또래 동조성으로 나타나, 가해자는 애착관계가 또래관계에 영향을 주어서 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경숙, 2003). 가해자에 관한 이명신(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갈등이 크고 지지결여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언어적 괴롭힘과 신체적인 괴롭힘이 증가하여 부모 관계성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중요한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만큼의 지지나 애착이 없으면 갈등해결방식으로 또래를 공격하는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려는 모습이라고 본다. 따라서 각 집단에 따른 애착관계의 영향도 더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가해피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3년도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김재민, 2003). 이 데이터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3년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하여 뽑힌 3,697명의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6.7%를 제외하여 조사 성공률(한 학생에 대한 학생조사와 학부모 조사가 세트로 모두 이루어진 경우)은 93.3%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104개 학교에 재학 중인 3449 명의 중학생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학생들의 학교지역은 도별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부산, 경상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측정변수와 분석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폭력가해와 피해 그리고 스트레스, 애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독립변수들을 설정하였다. 학생의 성별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으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수, 애착에서 부모 애착, 선생애착, 친구애착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했다. 조사도구들은 2003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에서 기존의 주요 척도들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재구성하여 사용한 변수들을 사용했다.

스트레스 관련 변수들은 부모와 친구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

레스를 받는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를 포함했으며 스트레스 변수들의 신뢰도는 .763이다.

애착변수인 부모애착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의 문항들을 평균으로 포함한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는 .860 였다. 선생 애착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를 평균으로 포함한 척도이며, 신뢰도는 .704이었다. 친구애착은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를 포함하는 평균척도로 신뢰도는 .784이다.

종속변수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에서 학생들이 폭력을 당했는지 또는 폭력을 가해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해피해의 경험을 나타내는 변수로 측정했다. 학생들의 설문에서 가해경험의 변수는, 지난 1년간 재학 중에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남을 협박하고 다른 친구를 집단 따돌림 시킨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렸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여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기(뺏기), 훔치기, 패싸움했는가의 변수를 포함한 척도를 사용했다. 신뢰도 지수는 .647 이다.

피해경험은 지난 1년간 재학 중에 남을 심하게 놀림당하거나 조롱받거나 남이 협박하고 집단 따돌림 당한 적이 있는가, 심하게 맞은 적이 있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여부, 돈이나 물건을 빼긴 적이 있나(뺏기)의 변수들을 포함한 척도를 사용했다. 신뢰도 지수는 .5867이다.

분석방법은 SPSS 11.0을 사용했으며 각 변수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방정식을 사용했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는 성별로는 남자는 1725명(50%), 여자는 1724명(50%)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지역은 도별로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부산, 경상도에 분포되어 있었다. 대상자를 일반집단과 가해피해중첩집단으로 나누었는데 가해-피해 중첩집단은 한번이상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을 동시에 경험했으면, 이 집단으로 분류했고 일반집단은 경험이 중첩적이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로 분류를 했다. 결과적으로 가해-피해 중첩집단은 남자는 245명(58.5%), 여자는 174명(41.5%)로 나타났으며 일반 집단은 남자 1480명(48.8%), 여자 1550명(51.2%)의 분포로 나타났다. 학교지역분포는 모두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애착, 스트레스와 가해피해 경험의 상관관계

애착, 스트레스 변수와 가해, 피해의 경험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1>의 결과에서 보듯이 우선 가해-피해중첩경험을 뺀 나머지 학생들의 집단을 일반집단이라고 정의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친구들 관련 스트레스가 서로 간에 관련성이 높았고, 부모와의 스트레스변수들과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변수의 경우에는 부모애착이 모든 스트레스변인들과 상관관계였으

며, 친구간의 스트레스요인들과는 부적인 관계이어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친구들 간의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선생애착은 부모와의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관계였는데 이 또한 선생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스트레스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구애착은 친구스트레스와 모두 부적인 관계였으며 부모애착과 선생애착과는 정적인 관계였다.

가해경험과의 관계성에는 친구놀림과 불인정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 모두가 유의미했으며, 애착관계에서는 부모, 선생, 친구애착이 모두 유의미했다. 피해경험에서는 모든 친구스트레스가 유의미했고, 부모성적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관계였다. 애착에서는 부모애착만이 유의미한 관계로 부모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피해경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에서는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부적인 상관관계로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피해경험은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1> 애착, 스트레스와 가해피해 경험의 상관관계(일반집단)

	친구놀림스트레스	친구불인정스트레스	친구열등스트레스	부모성적스트레스	부모의견충돌스트레스	부모대화스트레스	부모애착	선생애착	친구애착	가해경험	피해경험
친구놀림스트레스	1.000										
친구불인정스트레스	.714**	1.000									
친구열등스트레스	.513**	.633**	1.000								
부모성적스트레스	.118**	.163**	.192**	1.000							
부모의견충돌스트레스	.133**	.163**	.187**	.643**	1.000						
부모대화스트레스	.185**	.211**	.207**	.466**	.652**	1.000					
부모애착	-.113**	-.098**	-.076**	-.230**	-.348**	-.418**	1.000				
선생애착	.030	.025	.017	-.081**	-.089**	-.104**	.260**	1.000			
친구애착	-.086**	-.091**	-.056**	.027	.033	.024	.161**	.071**	1.000		
가해경험	-.041*	.001**	.016	.077**	.133**	.155**	-.087**	-.097**	.041*	1.000	
피해경험	.218**	.168**	.108**	.046*	.015	.031	-.042**	.011	-.010	-.142**	1.000

* $p < .05$, ** $p < .01$

애착과 스트레스변인들이 가해피해 경험 간의 상관관계가 가해-피해중첩 집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표<2>에 나타나듯이 친구스트레스 상관관계는 모두 높은 편이었으며, 부모관련 스트레스 변수와 친구스트레스 변수들도 서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나, 친구와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스트레스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반집단과 다른 것은 일반집단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도 있는 반면에 가해-피해 집단 모든 스트레스변수들이 상관관계가 있어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과 선생애착은 부모성적스트레스와 의견충동스트레스에 동시에 유의미했으며 친구애착은 친구가 인정해주지 않는 스트레스만 부적인 유의미한 관계였다.

가해경험의 경우에는 일반집단과 달리, 부모스트레스 요인들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나, 부모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해경험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관계는 선생, 부모, 친구 모두 유의미한 부적관계였다. 피해경험에는 친구관련 스트레스요인들이 정적인 관계로, 친구스트레스들이 많을수록 피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정적인 관계로,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피해경험도 높아졌는데 이는 가해-피해가 동시에 겹쳐지는 특성으로 일반집단과는 달리 피해나 가해 경험이 있을수록 다른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표 2〉 애착, 스트레스와 가해피해 경험의 상관관계(가해-피해중점집단)

	친구놀림 스트레스	친구불인정 스트레스	친구열등 스트레스	부모성적 스트레스	부모의견 충돌스트 레스	부모대화 스트레스	부모애착	선생 애착	친구애착	가해 경험	피해 경험
친구놀림 스트레스	1.000										
친구불인정 스트레스	.710**	1.000									
친구열등스 트레스	.571**	.630**	1.000								
부모성적스 트레스	.116**	.126**	.124*	1.000							
부모의견충 돌스트레스	.098*	.099*	.165**	.586**	1.000						
부모대화스 트레스	.160**	.166**	.247**	.423**	.614**	1.00					
부모애착	-.074	-.017	-.091	-.200**	-.345**	-.446**	1.000				
선생애착	-.051	.009	-.009	-.175**	-.126**	-.053	.187**	1.000			
친구애착	-.088	-.100*	-.066	.040	-.038	-.052	.089	.063	1.000		
가해경험	.064	.020	.066	.111*	.141**	.137**	-.178**	-.178**	-.033**	1.000	
피해경험	.303**	.220**	.238**	.046	.053	.070*	-.077	-.023	.012	.288**	1.000

* $p < .05$, ** $p < .01$

3. 청소년들의 애착과 스트레스가 가해,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애착과 스트레스가 일반집단에서의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3 >에 나타나듯이, 가해경험의 경우 통제변수인 성별은 유의미했으며 스트레스 변수에서는 친구의 놀림과 무시하는 스트레스가 가해경험과 부적인 관계였고, 부모와의 의견충돌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대화 스트레스가 정적인관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가해의 경우, 친구들의 놀림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해를 덜하게 되나 오히려 부모와의 의견충돌이나 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질수

록 가해를 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애착은 선생님에 대한 애착이 부적인 관계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선생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가해경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애착, 스트레스와 가해경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일반집단)

독립변수	가해경험		
	B	Beta	t
(상수)	1.037(.020)		52.842***
성별	-0.16(.004)	-.070	-3.752***
가구 월평균 소득	1.611E-05(.000)	0.32	.082
친구놀림스트레스	-.011(.003)	-.096	-3.656***
친구불인정스트레스	.003(.004)	.023	.791
친구열등감스트레스	.003(.003)	.028	1.168
부모성적 스트레스	-.003(.003)	-.025	-1.046
부모의견충돌스트레스	.008(.003)	.074	2.646**
부모대화 스트레스	.012(.003)	.114	4.508***
부모애착	3.410E-05(.003)	.000	.011
선생애착	-.011(.003)	-.083	-4.397***
친구애착	.006(.003)	.036	1.943
R ²	.044		
수정된 R ²	.040		
F값	11.965***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애착과 스트레스가 일반 집단에서 피해경험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표 4>를 보면, 통제변수인 성별은 부적인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스트레스에서는 친구의 놀림과 무시당하는 스트레스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결과 지어졌다. 피해를 당하는 경우, 친구들의 놀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해경험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애착의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변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경우는 또래친구의 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 중요한 변수로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애착, 스트레스와 피해경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일반집단)

독립변수	피해경험		
	B	Beta	t
(상수)	1.007(.015)		65.919***
성별	-.013(.003)	-.075	-4.054***
가구 월평균 소득	2.871E-06(.000)	.007	.398
친구놀림, 무시스트레스	.019(.002)	.199	7.627***
친구불인정스트레스	.003(.003)	.033	1.160
친구열등감스트레스	-.001(.002)	-.007	-.279
부모성적 스트레스	-.004(.002)	.045	1.888
부모의견충돌스트레스	-.001(.002)	-.049	-1.783
부모대화 스트레스	-.001(.002)	-.014	-.542
부모애착	-.003(.002)	-.026	-1.209
선생애착	.000(.002)	.002	.094
친구애착	.002(.003)	.017	.918
R ²	.058		
수정된 R ²	.054		
F값	16.148***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가해-피해중첩 청소년들의 애착과 스트레스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5>에 나타나듯이 통제변수인 성별은 유의미했으며 다른 스트레스 변수들은 별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애착에서는 부모애착과 선생애착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애착의 경우 애착이 많을수록 가해경험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애착의 경우도 선생의 애착이 많을수록 가해하는 행동이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선생님의 애착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볼 수 있었다. 일반집단과 비교했을 때 일반집단은 친구와 부모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반면에 가해-피해 집단은 별상관이 없었고, 애착관계에서는 선생님애착이 공통으로 나타나, 가해경험에는 집단과 상관없이 선생님과 관계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해-

피해 집단은 가해경험에 있어 부모님의 애착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애착, 스트레스와 가해경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가해-피해 집단)

독립변수	가해경험		
	B	Beta	t
(상수)	1.326(.078)		17.043***
성별	.035(.017)	.104	2.044*
가구 월평균 소득	-5.979E-05(.000)	-.062	-1.245
친구놀림, 무시스트레스	.008(.011)	.052	.704
친구불인정스트레스	-.007(.012)	-.047	-.600
친구열등감스트레스	.004(.010)	.029	.432
부모성적 스트레스	4.000E-04(.009)	.003	.045
부모의견충돌스트레스	.006(.011)	.040	.560
부모대화 스트레스	.005(.009)	.035	.517
부모애착	-.026(.011)	-.132	-2.311*
선생애착	-.025(.010)	-.130	-2.530*
친구애착	-.008(.012)	-.033	-.662
R ²	.073		
수정된 R ²	.047		
F값	2.776***		

* $p < .05$ ** $p < .01$, *** $p < .001$

가해-피해중첩집단에서 애착과 스트레스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을 보면, 결과적으로 친구놀림과 무시당하는 스트레스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나 일반집단과는 비슷한 결과였다. 애착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수는 없어 가해-피해중첩 청소년의 경우, 피해경험에서는 친구들이 놀리고 무시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가 놀리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피해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집단과 같은 현상으로, 피해경험의 경우 가해-피해 중첩이나 일반경험과 상관없이 피해

자가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친구들이 놀리고 무시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애착, 스트레스와 피해경험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피해경험(가해-피해 집단)

독립변수	피해경험		
	B	Beta	t
(상수)	1.172(.079)		14.825***
성별	-.004(.017)	-.013	-.250
가구 월평균 소득	-5.979E-05(.000)	-.062	-1.245
친구놀림, 무시스트레스	.034(.011)	.227	3.137***
친구불인정스트레스	.001(.012)	.006	.073
친구열등감스트레스	.015(.010)	.099	1.515
부모성적 스트레스	-.004(.009)	-.027	-.447
부모의견충돌스트레스	.004(.011)	.027	.393
부모대화 스트레스	-.004(.010)	-.029	-.430
부모애착	-.011(.011)	-.056	-.997
선생애착	.002(.010)	.010	.198
친구애착	.011(.013)	.043	.876
R ²	.098		
수정된 R ²	.072		
F값	3.819***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애착과 스트레스 요인들이 가해와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그 영향이 일반집단 청소년들과 가해-피해경험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반집단과 가해-피해중첩집단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 중첩경험이 아닌 일반집단의 경우에는 친구놀림 스트레스, 부모의 견충돌 스트레스, 부모대화 스트레스가 가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반면, 가해-피해 중첩 집단은 어떤 스트레스와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반집단 청소년이 가해행동을 할 때, 친구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특히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회피적인 대처행동을 한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며(서영미, 2001), 청소년이 느끼는 다양한 스트레스 중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이정남, 2003; 민하영, 유안진, 1998; 한미현, 유안진, 1995),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고 스트레스의 출구로 가해행동이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Natvig 외., 2001; 김길임·심희옥, 2002; 오명희, 1994)을 지지한다. 일반집단에서도 친구들의 놀림스트레스가 가해의 주요 요인으로 이로 인해서 가해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김혜원, 이해경, 2000).

애착관계의 경우, 일반집단은 선생님애착만이 유의미했으며 가해-피해 집단은 부모애착과 선생애착이 모두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 선생애착은 두 집단에서 공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해경험에서는 선생님과 관계성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주변의 사회체계에서는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생활의 장소로 학교에서의 적응이나 행동에는 선생님과 관계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사관계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나 행동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구자은, 2000; 최지은, 2002)와도 일치한다.

가해-피해 집단에서는 부모애착도 유의미했는데 이는 스트레스의 영향은 받지 않으나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가해-피해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애착에 대하여 더 높은 평균이 나타나고 정서적인 외로움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와도 연관되어(Ireland &

Power, 2004),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겪어서 더 외로울 수 있는 이 특정 집단의 특성상 애착대상이 더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선생에게 더 애착을 느끼며 주변 학우에게는 가해자이므로 친구애착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폭력적인 방법들을 쓰며(Olafsen & Viemero, 2000), 성격적인 면에서도 다른 집단과 다르다는 것(Mynard & Joseph, 1997)과 연관지어 일반집단과 특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친구의 놀림이나 무시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일반 집단과 가해-피해 집단 모두 유의미했으나 가해-피해 집단에서 더 강한 성향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서 친구관련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내용과 부합한다(박은영, 1995; 정우식, 1986; 강수방, 1987). 특히 피해경험에서 학교또래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한 올라프센(Olafsen)과 비에메로(Viemero)(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의 스트레스와의 관계성이 비슷하며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특정특성이 있어서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또는 폭력대상이 되는 것이 폭력의 성공가능성과 기대되는 보상의 표적이기 때문이라는 논쟁(Meier and Miethe, 1993)과 연결할 수도 있다. 가해-피해집단에서 이 변수가 더 강한 것은 가해행위를 하면서도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친구들과의 관계성에서 놀림이나 무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집단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은 또래가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유추할 수 있다. 학교생활면에서 학교생활부적응도 심하고 심리적으로도 가장 위태로운 집단이라는 연구들(한종철·김인경, 2000; 김희화, 2001)과 연관할 때 피해자에서 이 집단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시급한 것을 볼 수 있다. 애착관계는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두 집단 모두 피해자일 때에는 다른

요인들보다 또래가해자들이 놀리거나 무시하는 스트레스가 누구와의 애착 관계성보다도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피해자의 경우에는 누구에 대한 애착보다도 피해를 당하는 상태이므로 피해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셋째, 스트레스와 애착과 가해피해경험의 상관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타났다. 일반집단의 경우 스트레스와 애착변인들이 모두 유의미한 관계였고 부모애착이 친구간의 스트레스요인들과는 부적의 관계로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친구들 간의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고, 선생애착도 부모스트레스와 유의미한 부적관계로 선생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스트레스가 적어졌다. 이것은 애착관계가 청소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Armsden & Greenberg, 1987; Warren, Huston, Egeland, & Sroufe, 1997)과 일치하며 폭력경험에 중요한 요인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는 주요 인물에 대한 애착관계를 높이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가해경험과의 관계성에서는 친구놀림과 불인정스트레스, 부모스트레스 모두가 유의미했으며, 애착관계에서는 부모, 선생, 친구애착이 모두 상관이 있어 가해의 경우, 애착관계의 중요성을 볼 수 있었다. 피해경험에서는 모든 친구스트레스가 유의미했고, 부모성적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관계였고 부모애착만이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부적의 상관관계로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피해경험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피해집단 상관관계는 부모스트레스 변수와 친구스트레스 변수들이 서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친구와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스트레스도 높았다. 이는 일반집단과 달리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변수도 있는 반면에 가해-피해집단 모든 스트레스 변수들이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의 상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과 선생애착도 부모성적스트레스와 의견충돌스트레스에 동시에 부적의 유의미해 애착과 스트레스의 부적 관계성은 일반집단과 비슷하게 나타났

다. 가해경험의 경우, 일반집단과 달리, 부모스트레스 변수들만이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로 부모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해경험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착관계는 선생, 부모, 친구 모두 유의미한 부적관계로 일반집단과 비슷했다. 피해경험에는 친구관련 스트레스요인들이 정적인 관계로, 친구스트레스들이 많을수록 피해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은 정적인 관계로, 가해경험이 높을수록 피해경험도 높아지는 결과인데 이는 일반집단과 달리 가해-피해경험이 중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는 결과라고 본다.

이 결과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 함의를 유추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중학생인 청소년이 폭력과 연관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집단과 가해-피해중첩집단의 경험에 미치는 변인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는 각 집단별로 따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로 일반집단의 경우, 부모스트레스와 대화 스트레스가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일반 가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부모대화워크숍이나 부모를 위한 올바른 자녀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부모가 주는 스트레스에 관한 교육이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법교육 등도 포함할 수 있다. 또 선생님과의 애착관계가 두 집단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멘토 프로그램, 학교사회복지사, 상담사와의 관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증진시켜 가해행동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의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

가해-피해중첩집단의 경우는 스트레스보다 부모애착과 선생애착에 중심을 두어서 기본적으로 부모, 선생님과 관계성 회복으로 정서적인 안정이나 인정을 받아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적어지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애착관계를 개선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방안을 개발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는 자신이 학교에 속하고 학교에서 자신과 애착

관계가 있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덜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연구(Duke, 1989)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둘째,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대한 차별적인 개입과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각 가해, 피해경험에 따라 연관된 스트레스나 애착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학교나 복지관의 상담일선에서는 가해, 피해경험을 하는 청소년들과 또 중첩적으로 행동양식이 나타나는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입에 적용을 하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애착과 스트레스의 관계성도 염두에 두어서 가해나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그 행동들에 대한 개입이나 예방을 위해서는 애착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는 줄이는 방안들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학교환경에서의 폭력경험에 대한 개입방안을 활성화를 해야 한다. 미 15개 도시에서 시행된 전국적인 학교관련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평가에서도 학교관련 예방개입이 비행폭력행동을 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Gottfredson,1987), 기본적으로 폭력이나 가해경험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 환경의 개선과 개입방안들이 더 활성화되어야한다. 또한 교사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행동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된 가능성, 원인, 결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한다 (Limper, 2000). 학교 안에 확실한 기준이나 규칙이 있는 학교일수록 문제점들이 덜 나타났다는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Gottfredson and Gottfredson, 1985; Gottfredson, Gottfredson, and Hybl, 1993).

따라서 중요하게 인지해야 할 사항은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들의 지원이나 지속적인 상담, 관련된 프로그램의 정착이다. 학교 교사의 역할도 크지만 이렇게 가해, 피해자를 다루고 특히 중요한 가해-피해자들을 다루는 개입이나 프로그램에는 전문적인 훈련과 프로그

램을 책임지고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은 지속적인 전담 학교관련전문가들의 개입이 각 학교지역에 장기간 투입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집단과 가해-피해 중첩집단만을 중심으로 보았으나 향후연구에서는 좀더 세분화된 집단으로 나누었으면 더 세부적인 내용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보며 지역적인 차나 성별차도 분석하면 더 진전된 연구가 되리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성희 · 이재연. 1992.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13권 2호 pp. 175-188.
- 강수방. 1987.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자. 1996.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에 관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연구.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구본용. 1997. 청소년집단의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제 29권. 청소년대화의 광장.
- 구자은. 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 가정생활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 2003. 중학생의 또래동조성 및 애착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논문.
- 김길임 · 심희옥. 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학년과 성별비교. 한국아동학회지 제23권 제5호, pp. 139-151.
- 김용태 ·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제29권.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준호. 1989. 공부압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 김선애. 2000.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호 제1권, pp. 25-50.
- 김혜원 ·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4권 제1호, pp. 45-64.
- 김희화. 2001. 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학교생활특성에 관한 연구: 일반집

- 단, 가해집단, 피해 집단 및 가해-피해 집단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8호 제2권, pp. 119-142.
- 문화관광부. 2004. 2004년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민하영·유안진. 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척도개발. 아동학회지 제19호 제2권, pp. 77-96.
- 박순진. 2005.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 중첩. 제 1회 한국청소년 패널학술대회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 pp. 259-268.
- 박은영. 1995.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체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삼준. 1996. 어린왕따 민순이. 서울: 우리교육.
- 서영미.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명희. 1994.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의 스트레스적 사건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혜정. 2000. 집단 괴롭힘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선희. 2003.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의 상호 가해-피해정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김재민.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명신. 2002. 괴롭힘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 괴롭힘 행동유형, 가해자의 심리, 행동적 결과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1권, pp. 29-61.
- 이민아. 1998. 초등학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주. 2003. 아동의 집단 괴롭힘 행동특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4호 제2권, pp. 121-146.
- 이정남. 2003.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법에

-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병애. 1997. 중학교일반학생과 비행학생의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방법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식. 1986. 청소년 문제 그 실상과 대책. 서울: 삼성출판사.
- 최은숙. 1999.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숙. 2003. 청소년의 자아개념, 스트레스, 비행의 관계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 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미현·유안진. 1995.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제17호 제1권, pp. 173-188.
- 한종철·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 6권 제 2호, pp. 103-114.
- 황정규. 1990. 한국학생의 스트레스 측정과 형성. 서울사대 논총.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pp. 427-454.
- Arora, C. M. (1996). Defining bullying; Towards a clearer general understanding and more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Vol 17*, pp. 317-329
- Baldry, A. C., & Farrington, D. P. 2000. Bullies and delinqu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arental Style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0*, pp.17-31.

- Bernstein, J. Y & Watson, M. W.(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2 No. 4, pp. 483-498.
- Duke, D. L.(1989). School organization, leadership, and student behavior. In O. C. Moles (Ed.), *Strategies to Reduce Student Misbehavior*.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 Gottfredson, D. C., Gottfredson, G. D., and Hybl, L. G.(1993). Managing adolescent behavior: A multiyear, multischool study.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0, pp. 179-215.
- Gottfredson, G. D., and Gottfredson, D. C.(1985). *Victimization in Schools*. New York: Plenum.
- Gottfredson, D. C. (1987) An evaluation of an organization development approach to reducing school disorder. *Evaluation Review* Vol. 11 No. 2, pp. 739-763.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ward, M. S., & Medway, F. J. (2004). Adolescents' attachment and coping with stress.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 41 No. 3, pp. 391- 402.
- Ireland, J. L., & Power, C. L. (2004). Attachment, emotional loneliness, and bullying behavior: A study of adult and young offenders. *Aggression Behavior*, Vol 30, pp. 298-312.
- Lauritsen, J. L., Sampson, R. J., & Laub, J. H. (1991). The link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Criminology*, Vol. 29, pp. 265-292.
- Limper, R. (2000). Cooperation between parents, teachers, and school boards to prevent bullying in education: An overview of work

- done in the Netherlands. *Aggressive Behavior*, Vol 26, pp. 77-83.
- McDemott, Joan. (1983) Crime in the school and in the community: Offenders, victims and fearful youth. *Crime and Delinquency*, Vol. 29, pp. 270-283.
- Meier, R. F. & Miethe, T. D. (1993). Understanding theories of criminal victimization, *Crime and Justice* Vol 17, pp. 459-499.
- Mynard, H., & Joseph, H. (1997). Bully/Victim probl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 in 8 to 13 year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Vol.67, pp. 51-54.
- Natvig, G. K., Albrektsen, G., & Qvarnstrom, U. (2001).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s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No. 5, pp. 561-575.
- Olafsen, R. N., & Viemero, V. (2000). Bully/victim problems and coping with stress in school among 10- to 12-year old pupils in Aland, Finland. *Aggressive Behavior*, Vol 26, pp. 57-65.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 35, pp. 1171-1190.
- Rigby, K. and I. K. Cox. 1996. The contributions of bullying and low self-esteem to acts of delinquency among Australian teenage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21 No. 4. pp. 609-612.
- Roland, E., & Idsoe, T. (2001). Aggression and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Vol. 27, pp. 446-462.
- Singer, Simon J. (1981). Homogeneous victim-offender populations: a review and some research implications,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72, pp. 779-788.

Taki, M. (2001). Relation among bullying, stress and stressor: A follow-up survey using panel data and a comparative survey between Japan and Australia, *Japanese Society*, Vol. 5, pp. 118-132.

Warren, S. F., Huston, L., Egeland, B., & Sroufe, L. A. (1997). Chil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and early attach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6, pp. 637-644.

ABSTRACT

The Effect of Stress and Attachment o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A Focus on Dual Experience
Group and General Experience Group

Kim, Sun-Ah*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 of stress and attachment o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experiences among adolescents. The study compared two groups, adolescents who had experienced both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nd the other which had general experiences. Results found that first, in offending experience, general group's stress related to friends' teasing and parent communication troubles were significant and none were related in the dual experience group. Teacher attachment was significant in the general group while teacher and parent attachment were significant in the dual experience group. Second, victimization experience was related to friend's teasing stress in both groups. Correlation results show differences in both groups. According to the results, stress and attachme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velopment of violence related programs. Differentiated programs based on violence experiences should be developed and more understanding and interventions for dual experience adolescents are needed.

Key words : adolescent, violence, offending, victimization, stress, attachment

투고일 : 9월 5일, 심사일 : 12월 6일, 심사완료일 : 12월 20일

* Korea Cyber University